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7일 김현선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전시주제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다름' 미래 디자인에 담는다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디-레볼루션 디자인 혁명' 확정 주제전·국제전·AI관·학술행사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변 화의 물결 속에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찾다.

내년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행사 주 제를 'D'Revolution(디-레볼루션: 디자인 혁 명) '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 다. 전시 주제 'D'Revolution'은 'Design(디 자인)'과 'Revolution(혁명)'의 합성어로 변 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탐구하는 의미미를 담았다.

27일 김현선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 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는 디자인의 과거·현재 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 와 다름을 포용하는 시대정신을 담고자 한다" 며 "이미 시작된 디자인 분야의 많은 혁명, 일 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치유를 비대면, 비접 촉 등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표현해낼 것"이 라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1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주제전, 국제전, AI전시관, 특별전, 지역산업관, 디자인 체험프로그램, 학 술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주제전은 일상의 혁명, 영역의 혁명, 행위의 혁명, 정보의 혁명, 표현의 혁명 등을 컨셉으로 치유형 전시, 네트워크형 전시, 체험형 전시로 연출한다. 주제관은 'D'Revolution, 하나의 주제, 두 개의 관점'으로 공공성과 지역성을 동 시에 이야기한다. 공공성은 환경, 장애, 인종 젠더, 사상, 문화 등에서 '다름'을 이유로 소외 된 이들의 존중을 통해 완성되는 디자인의 이 야기를 담아낸다. 지역성은 '광주는 혁명이다. 혁명은 빛이다'를 세부 테마로 광주의 기억과 광주의 흥을 담는 전시로 구성, 광주의 정체성

을 다룰 예정이다.

국제관은 디자인 이슈를 보여주는 해외작가 작품전을 주제로 꾸며지며 폴란드 특별전이 추 진된다. 전시 구성은 놀이의 방법으로 제안하 는 문화적 해킹과 놀이를 통한 생태학적 접근 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연출한다.

체험관은 '한계를 뛰어 넘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주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인 간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 간 커뮤니케이 션의 시각화·입체화 기술과 디자인의 접목을 담아내며 ICT, AI 등을 적용해 디자인의 개념 을 확장하는 스토리 기반 퍼포먼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등으로 디지털 쌍방향 체험을 구현한다.

또 광주시 인공지능(AI)산업 활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컴그룹과 협력할 예정이며, 디뮤지엄, 엔씨소프트, 넷마블, 현 대기아차, 현대 자율주행차, 포르쉐 Old Car 디자인개조 등의 기업과 기술적 협업참여도 추 진중이다.

AI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상의 혁명'을 주제로 AI기술이 만들어낼 일상의 혁명을 과 학자들의 시공간 연구와 물리적 이론을 바탕으 로 시지각화 된 영상으로 담아낸다. 생활 속의 AI기술의 이해와 체험을 위해 마이크로소프 트, SK 텔레컴, LH리빙랩, SH공간복지 등과 도 협력한다.

지역산업관은 '디자인을 통한 광주의 혁명' 을 주제로 광주의 디자인을 소개한다. 광주시 지원 사업인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사업 결과물을 소개하고 마케팅형 전시를 추진하며 행사 기간 중 진행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제컨퍼런 스와 지역의 문화, 관광, 공공 분야 특별프로그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내년 9월 2일부 터 10월 31일까지 60일간 광주비엔날레전시 관, 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감상에서 소유로…미술장터 '예술산책'

11월 1일까지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청년·신진 작가 74명 작품 200여점 10만원~50만원대 판매…아트숍도 운영

지역 젊은 작가들이 만든 직거래 작가 미술 장터 '예술산 책'이 지난해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렸다. 50여명의 작가 가 200점을 선보인 장터에서는 100여점이 주인을 찾아갔고 4000여만의 판매금액은 전액 작가들에게 돌아갔다.

작가미술장터는 기존 미술 시장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 었던 작가들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 로 작품 소장이 어려웠던 미술 애호가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 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직거래 아트 마켓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와사비가 주최하는 '예술산책 2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가 오는 11월1일까지 담양군 해동문 화예술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 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작가와 대학졸업 후 이제 막 작품 활동 을 시작한 신진작가 74명의 작품 2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서양화가 이인성 작가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 번 행사는 전시공간이 3개 건물로 독립된 점을 활용, 건물별로 특색 있게 '지각의 세계', '상상의 세계', '사실의 세계'라는 3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판매 가격대를 10만원부터 50만원 사이로 책정, 미술 에 관심이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작품 구매를 어려워 했던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또 광주·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업 갤러리의 활동이 미흡해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 작품 전시 및 판매 이외에도 다양한 미술관계 자를 초대해 젊은 작가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는 고마음, 김성결, 인춘교 작가와 독립큐레이터 허유림. 해동문화예술촌 감독과 학예사로 활동 중인 양초롱, 김옥향 등 미술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행사가 펼 쳐진다. 지난 14일에는 '지역에서 예술, 상생방안 포럼'이 열 리기도 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아트숍을 운영하고 작가의 미완성된 프린 트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완성해보는 체험 프로그램과 도슨 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밖에 11월1일 오후 5시에는 '구매 자가 뽑은 인기작가 작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해동문화예술촌은 오랫동안 주조장으 로 사용되던 곳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이라 예술촌 구석 구석 을 둘러보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31일(오후 7시)에는 해 동문화예술촌의 지원을 받아 '이정주 명창과 함께하는 고풍 음악회-담빛, 10월을 닮다'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전시 환경에 맞추어 입장 전 안내가이드를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작품 감상과 판매루 트를 준비했다. 예술산책 홈페이지(https:// takeawalkthroughart.modoo.at) 참조.

이인성 전시감독은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큰 주제 아래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의 예술작품들을 관객들이 쉽게 구 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 섹션을 통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11월1일까지 담 양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리는 작가 미술 장터 '예술산책2-예술이공 존하는 세계'전에서는 76명의 작가 작품 200 여점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주로 10~50만 원대로 판매되며 다양 한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담헌서실 이묵회·제주전각학연구회, 31일까지 관선재 갤러리

'현대 서예와 전각의 만남 Ⅱ'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현대 서예와 작은 공간에 우주와 자연, 인간의 삶을 조형하는 전각이 만났

'현대 서예와 전각의 만남 Ⅱ'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 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담헌 전명옥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인 담헌서실 이묵회(회장 박익정)와 제주 전각학연구회 (회장 오장순)가 만나 여는 두번째 교류전이기도 하다. 두 단 체는 꼭 10년전인 지난 2010년 첫번째 합동전을 열었었다.

이묵회에서는곽영주·김문태·김삼순·김정례·서원표·서현희 ·유경숙·이주옥·이흥홍·정만위·정문현·조국훈·최태형 회원 등 13명의 회원이 개성 넘치는 현대서예 작품을 선보이며 전명옥 선생도 작품 '설두중현선사송'을 찬조출품했다.

제주 전각학연구회에서는 김성훈·김재흥·김지웅·김형식·김



오장순 작 '덕(德)

혜정·박흥일·부희경·오장순·조길재 등 11명의 회원이 작품을 내놓았다. 문의 062-225-53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익정 작 '이달 시 산사'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BIG INNOVATION CES 20 (17 2016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를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u>서울점 종로 5가역 1층</u>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슬라브목앙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 겨울의 차가운 냉기! ┐ ┗ 여름의 뜨거운 열기! ┛





실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